

III 소가문도





여수시
변천사

Ⅲ. 소거문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소거문항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59.5km 떨어져 있다. 섬사랑호 기항지인 손죽도항까지는 2.7km 떨어져 있으며, 인근의 평도항까지 6.8km, 광도항까지는 13.2km 떨어져 있다.



소거문항



소거문도 전경

2) 인구현황

2023년 7월 1일 기준, 소거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20세대 3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중 남자가 19명, 여자가 12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삼산면의 5개 조사 대상 도서 중에서 4번째이다.

인구 현황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소거문도	20	31	19	12

3) 토지현황

소거문도의 총면적은 1.77km²이고,¹⁾ 해안선 길이는 7.5km이다. 199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전답 0.1km², 임야 1.55km², 대지 및 기타가 0.12km²이다.

토지 현황 (km²)

구분	면적	전답	임야	대지 및 기타
소거문도	1.77	0.1	1.55	0.12

1) 『삼산면지』와 『순죽향토지』에는 1.3km²로 표기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손죽도에서 바라본 소거문도

4) 공공기관

소거문도에는 특별한 공공기관이 없었다.

5) 교육기관

손죽국민학교 소거문
초도초등학교 소거문분교²⁾ 분교는 1953년 4월 13일 삼산면 손죽리 산 291번지에 설립되었으며, 1973년에는 학생 수가 70명이었던 적이 있었다. 1985년 3월 1일 손죽국민학교가 분교로 격하됨에 따라 초도국민학교 소거문분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9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었다.

1953. 04. 13. 손죽초등학교 소거문분교장 설립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소거문분교장으로 변경

1999. 03. 01. 소거문분교장 폐교



소거문분교터

2) 손죽초등학교 연혁은 『손죽향토지』(1999)와 『초도향토지』(2020)가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손죽향토지의 연혁을 따른다.

6) 사회조직

어촌계 소거문어촌계는 2023년 현재 어촌계원 수가 10명으로, 1980년대에는 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수가 많았으나, 점차 주민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명, 이하가 3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며, 남녀비율은 대략 4:6이다. 어촌계의 수익사업은 가사리와 같은 해조류를 마을 주민 공동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익사업은 따로 없다. 선박을 이용한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계원도 없다.

나. 지형과 환경

소거문도의 기후, 주변 조류는 인근의 초도와 비슷하다.

1) 지형

섬 중앙에 솟아 있는 해발 350m의 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 식수원이 풍부하다. 주봉으로부터 바닷가로 많은 돌무더기가 흘러내린 애추(崖錐)가 발달하였으며, 섬을 둘러싼 해식애와 해식동 등 해안 침식지형이 발달하였다.



바다에서 바라본 소거문도

(1) 해식애와 해식동

해식동은 해식애의 기저부에 발달한 것으로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은 것이 많고 대부분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 등의 작용을 받아 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더구나 해안에 주상절리가 발달하면 이곳에 생긴 틈바구니를 파고, 파도가 밀어닥쳐 썰기 역할을 하여 그 틈을 넓히고 연층부를 관통하기도 한다.³⁾ 소거문도 북부 해안 쪽으로는 깎아지른 해식애와 소규모 해식동이 잘 발달하여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2) 암석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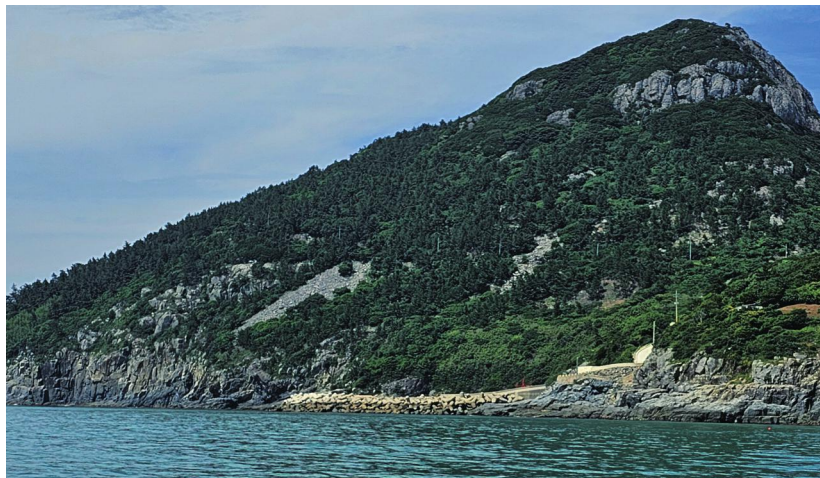
해안에 이르러 급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반암이 풍화 침식에 노출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해식애를 비롯한 해안침식지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식애에서 분리된 거력(boulder)들이 해안가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거문도 남단의 암석해안 전경

(3) 애추

우리말로 ‘너덜’, ‘덜’이라고 불리는 애추는 거커리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단애면에서 암설(바위 및 자갈)이 하나씩 하나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떨어져 내려 형성된다. 중위도와 고위도의 산지에서는 겨울 동안 얼었던 단애면이 봄에 녹을 때 암설이 잘 떨어져 나온다.



소거문도 애추

3) 『자연지리학사전』

애추는 결빙과 관련된 기계적 풍화 작용이 활발한 기후 아래에서 잘 발달하며, 대부분 거친 조립 암설(粗粒岩屑)로 이루어져 있다. 애추는 낙하하는 암설이 쌓여 이루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 사면 경사는 암설의 안식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애추의 사면은 35° 내외의 경사를 유지하며, 단면이 직선상이다. 그리고 암괴(큰 바위 덩어리)는 낙하할 때 운동량이 크므로 애추 사면의 기저부에 가서 쌓이며 세립 암설(자갈류)은 최상부에 쌓이는 경향이 있다.

2) 지질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kav)으로 이뤄졌고, 만입을 이루는 남쪽 해안부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Kiv)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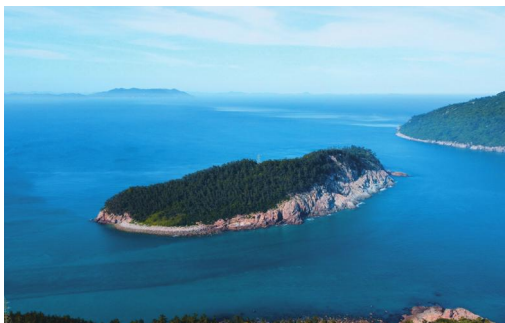
구릉을 중심으로 안산암질응회암 풍적토가 잔적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산록의 하부와 곡두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봉적층을 이루고 있다.

4) 주변 환경

소거문도는 아름다운 해안 침식지형, 큰산과 해식애를 이용한 암벽 등반, 큰산 주변의 등산로 개발을 통한 난대림 탐방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은 섬이며, 마을은 섬의 남쪽 만 입구에 발달하였다. 농산물로 마늘이 재배되며, 수산물로는 전복, 문어가 유명하다.⁴⁾

5) 주변 도서

주요 섬으로 손죽도와 무인도인 잔커리섬이 있고, 서쪽으로 대바위도가 있다. 남동쪽으로 평도와 광도가 자리 잡고 있다.



잔커리



대바위도

4) 『디지털여수문화대전』

다. 식생과 생태

지식검색의 산지의 경관과 생태계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교목한계선보다 높은 고산대에 주로 자라는 고산식물은 키가 작고, 줄기와 가지 등 지상부에 비하여 뿌리 등의 지하부가 깊고 길게 뻗으며, 관목 상태로 지표면을 기어서 자라며 잔가지가 많다. 잎은 두 겹과 빛나는 가죽모양의 혁질(革質)이고, 식물체 표면에 털이 많고 착상조직이 잘 발달되어 광합성을 쉽게 한다. 고산식물은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나, 꽃을 피우는 가지는 적다.”⁶⁾

위 설명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식생을 설명하는 말과 거의 일치한다.

1) 소거문도의 생태자원

소거문도에 자생하는 넓은잎늘푸른수종은 우묵사스레피,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자금우 등이 출현하고 있다. 생태자원과 식물 식생 등은 인근의 손죽도와 비슷하다.

소거문길 1-→95 이정표를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숲에는 늘푸른넓은잎 수종들이 정글을 이루고 있다. 잡목들 사이로 우뚝 솟기는 했으나 그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소나무들이 아직도 사이사이에 서서 안간힘을 쓰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소거문로 1-→95 이정표

선착장에서 내려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오면 첫 번째 만나는 쉼터인 마을회관 앞 팔각정에서 누구라도 한숨 돌리고 쉬어가야 할 것이다. 팔각정과 마을회관 뒤쪽 조그만 화단에 양귀비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양귀비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더군다나 마을의 입구에 양귀비라니?”

6) [네이버 지식백과] 산지의 경관과 생태계 (한국의 자연지리, 2012. 12. 30.공우석)



양귀비



마을입구 양귀비

여기에 자라는 양귀비는 겹양귀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엽속과의 꽃양귀비와 개양귀비가 많다. 소거문도에 있는 양귀비는 최근 관상용으로 수입한 원예종 양귀비이다. 겹양귀비의 경우에도 원예종이라고 키우면 안된다. 지난 6월 완도읍 농공단지 일대의 가로화로 키우고 있는 양귀비가 마약류로 밝혀졌다. 완도해경은 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겹양귀비가 양귀비의 변형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거하여 성분분석을 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중간 단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양성반응으로 마약류 양귀비로 확인되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⁷⁾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양귀비의 재배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양귀비는 단 한그루라도 키우면 안된다. ‘양귀비라도 몇 그루 키우는 것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혹시라도 내 집 안에 양귀비씨가 날아와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인지하면 제거해야 한다. 요즘은 양귀비 재배를 드론으로 조사하여 정부에서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몰래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여수시 해경에서 양귀비 단속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이 잇따라 적발돼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 총 70건이 적발됐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양귀비 단속 취약지역인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총 특별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단속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등 4개 섬과 함께 화정면 개도,

7) 출처: <https://www.ohmynews.com>, 2023.06.09.

월호도, 하화도 등 4개 섬을 집중단속해 현재까지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⁸⁾

마을 안 담벼락에는 거의 송악과 마삭줄, 이대 등으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 송악이나 마삭줄이 오랜 세월 자리를 틀고 앉아서 이제 이 담벼락을 쓰러뜨리려면 송악이나 마삭줄을 베어내고 제거한 후 그 뿌리까지 썩어야만 가능할 것같이 야무지게 뿌리를 내렸다.

어느집 앞마당에서는 송악으로 울타리를 확실히 두른 집도 눈에 띈다. 남면이나 삼산면의 많은 집들이 송악이나 담쟁이덩굴로 담벼락을 장식함과 다르게 소거문도는 마삭줄이 상대적으로 많다. 어느 담벼락은 특이하게 땡땡이덩굴로 뒤덮인 담벼락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나고 지의류나 이끼, 풀 등이 자란다. 이렇게 발생한 식생에 의해 미세한 생물들이 토양을 바꾸고 초원에서 숲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식물이 자라면서 풀밭이 만들어지는 초지에 쉼 등의 넝쿨이 들어서고 잡목들이 무성히 자라면서 사람들의 간섭을 받았던 밭들은 거대한 밀림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숲의 변화를 천이라고 한다. 숲의 천이에서는 1차 천이 과정으로 초기 식생이 이주, 정착하는 단계를 말한다. 풀씨들에 의해 초원이 형성되고 소나무 같은 천이 선구수종이 침입하면서 숲을 이룬다. 이후 내음성이 강한 서어나무같은 수종이 숲을 대체함으로써 2차 천이 과정으로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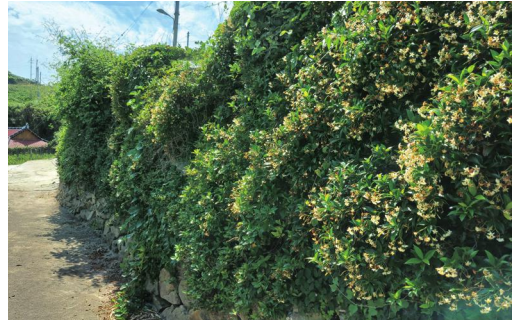


역새가 자리잡은 소거문도

8) 출처: 광양시민신문(<http://www.gycitizen.com>) 2022.05.30.



땀덩이덩굴



마삭줄 담장

풍경을 담으려고 들이댄 사진 속에는 역새가 풍경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 뒷산의 소나무는 송악이나 칙녕쿨에 치여서 맥을 못추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뒤쪽 간데끝으로 난 길의 움푹 파인 곳에는 이대가 균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안길에도 이대가 가로수인 양 심어져 있어 방풍림 역할을 한다. 소거문도의 환경 조건에서 방풍림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무가 이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마을안길에는 칙녕쿨과 땀덩이덩굴이 균락을 이루고 있다. 가을에 까만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익어 있을 때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던 없던 얼마나 풍성해 보일까 싶다. 마을을 조금 벗어나 산지로 들어서니 멍석딸기가 지천이다. 빨간 용단을 깔아놓은 듯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딸기는 그대로 나무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2) 소거문도의 식물 및 식생

소거문도의 큰물 쪽에는 마삭줄, 개산초, 동백나무, 광나무, 예덕나무, 호자나무, 칙 등이 있고 바위가 많은 쪽으로 곰솔이 분포되어 있다. 거커리산을 중심으로 신추쪽에는 메밀жат밤나무, 후박나무, 남오미자, 멀꿀 등의 늘푸른넓은잎수종이 균락을 이루고 있다. 광나무, 소사나무, 작살나무, 음나무, 모람, 왕모람, 사스레피나무도 상당히 많은 균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본으로는 개망초,



절벽에 핀 원추리



데이지

영경귀, 억새, 환삼덩굴, 산머위, 우슬 등이 많다.

동구지 지역에는 늘푸른넓은잎수종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메밀жат밤나무, 구실жат밤나무, 후박나무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산등성이쪽으로 소사나무, 닥나무(꾸지나무인지 정확하지 않음), 느릅나무, 섬대, 사스레피나무의 군락이 있고, 왕대나무가 있다. 해안 절벽에는 원추리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해안에는 갯무, 갯완두, 갯강활, 갯쑥부쟁이, 갈대 등 염생식물도 출현하였다.

3) 육상동물⁹⁾

소거문도에서 사는 동물은 직박구리, 동박새, 휘파람새, 바다직박구리, 섬개개비, 갈새, 꿩이 갈매기, 황로, 알락할미새, 가마우지, 매 등이다. 남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띠제비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제비나비, 배추흰나비, 남방부전나비, 암먹부전나비, 네발나비 등 손죽도와 비슷하다.

4) 해양생물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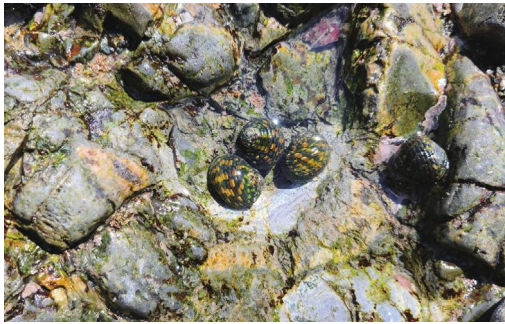
조간대 암반조사 결과 총 23종이 출현하였으며 해면동물 1종, 자포동물 1종, 연체동물 16종, 절지동물 3종, 극피동물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면동물에서는 주황해변해면, 자포동물에서는 흰깃히드라가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에서 세로줄조개사돈, 군부, 애기삿갓조개, 테두리고둥, 명주고둥, 보말고둥, 띠각시고둥, 방석고둥, 큰총알고둥, 입뿔고둥, 피뿔고둥, 털껍질뿔지고둥, 타래고둥, 홍합, 지중해담치, 두드럭고둥, 절지동물에서는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9) About전남의섬(<https://islands.jeonnam.go.kr/>)

10) 2002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라남도 여수 II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3)

갯강구, 극피동물에서는 별불가사리, 분지성계가 출현하였다.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출현하지 않았다.

해조류에서는 총 52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류 4종, 갈조류 12종, 홍조류 3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집된 종으로는 작은구슬산호말, 애기가시덤불, 지충이, 참까막살, 바위두릅, 구멍갈파래, 잎파래, 큰깃복슬털, 바위수염, 불레기말, 잘록이고리매, 바위주름, 연두털말, 참풀가사리, 개서실, 부채살, 참지누아리, 실풀, 모로우붉은실, 톳, 타래서실, 미끌도박, 잎꼬시레기, 진두발, 개도박, 누른끈적이, 굵은석목, 참보라색우무, 미역, 참가죽그물바탕말, 참그물바탕말, 청각, 방석청각, 참화살깃산호말, 애기돌가사리, 붉은까막살, 넓은분홍잎, 참사슬풀, 외톨개모자반, 팽생이모자반, 나무꼴애기산호말, 우뭇가사리, 참곱슬이, 엇가지풀, 두갈래분홍치, 갈고리분홍잎, *Delesseria* sp., 바다참나무잎, 별뿔개엷은잎, 비단풀사촌, 왜비단잘록이, 네깃풀, 넓은보라색우무 등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었다.



해양생물



해양생물

5) 보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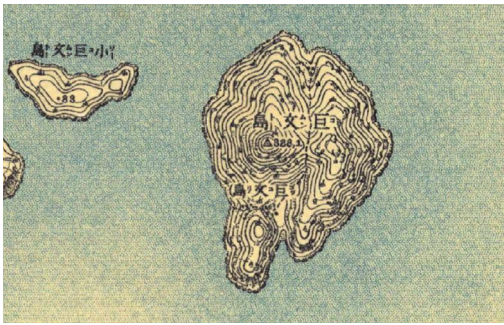
소거문도에는 특별한 보호수가 없다.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소거문도는 본래 흥양현(현 고흥군)에 속한 섬이었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산군 삼산면 속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군에 속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년에는 여천군에 편입되어 손죽리의 자연마을이 되었다. 1998년 3여 통합으로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1700년대 오씨, 이씨가 처음 입도하여 살았다가 그 후에 김씨, 전씨, 방씨, 송씨, 정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해 온다.



일제강점기 지도



마을회관

나. 마을유래

소거문마을

거문도(巨文島)의 유래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삼도(三島)라 불리다가 1885~1887년에 걸친 영국군의 거문도사건 당시 청나라의 정여창 제독이 거문도에 자주 상륙하여 섬 주민과 회담이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자 한문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섬 주민의 뛰어난 문장에 감탄하여 정여창 제독이 조정에 청하여 거문도라 명명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실록' 19년 5월 22일을 비롯하여, 호구총수, 대동여지도 등에서 지금의 소거문도를 거문도라 표기하고 있고, 동시대에 발행한 여산지 등에서도 소거문도를 거문도라고 표기하고 있다. 삼도를 거문도로 처음 표기한 기록으로는 1885년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사건을



소거문마을

기록한 고종실록으로 고종 22년 4월 3일(음)¹¹⁾ 기록에 ‘本月初三日上午到泊于巨文島後登岸與島民間答節略’이란 대목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정여창 제독이 거문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그 이후로 정제독과 주민들의 필담에서 이름 지어졌다는 설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거문도사건으로 삼도는 조정의 기록에서도 거문도로 계속 표기되었고, 이후 1887년에 동도에 거문진이 설치되었으며 1896년 돌산군 삼산면 시절엔 다시 삼도로 불리오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부터는 현재의 거문도로 사용되었다.

소거문도는 본래 거문도로 불렸던 섬이다. 우리말로 ‘커커리’ 또는 ‘거글이’라 부르던 이름을 조선시대 때 이두식 한자 지명 표기법을 적용해서 거글이의 ‘거’는 소리로 ‘클 거(巨)’자를 쓰고, ‘글’은 ‘글 문(文)’자로 표기하였으며, 섬이어서 ‘섬 도(島)’로 써서 거문도(巨文島)가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섬의 형태가 거문도의 고도와 닮아 작은 거문도란 뜻에서 소거문도라 불렀다 한다. 원래는 삼산면 관내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웃섬’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소거문도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제강점기 초기 마을주민들이 삼산면을 찾아 소거문도의 이름을 되찾아 줄 것을 향의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소거문도는 잠시 거문도의 한자 거를 ‘톱 거(鋸)’자로 바꾸어 거문도(鋸文島)로 표기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거문도와 한자음이 같아 혼란이 계속되자 한자 소(小)를 붙여 지금까지 소거문도로 표기하고 있다.

11) 양력으로는 1885년 5월 16일

다. 소거문도의 어제와 오늘

1) 소거문도의 인구변화

소거문도는 1968년 10월 기준으로 49세대 353명이 살았다. 5년 후인 1973년 세대수는 46세대 307명이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1985년에는 30세대 13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996년에는 21세대 54명이었다. 2011년 17세대 2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삼산면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귀어하기 시작해 주민 등록상 인구는 20세대 31명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인구 현황 (명)

구분	1968	1973	1985	1996	2011	2023
세대수	49	46	30	21	17	20
인구수 (남+여)	353 (118+235)	307 (153+154)	139 (69+70)	54 (23+31)	27 (15+12)	31 (19+12)

2) 일본군 정찰기 충돌

소거문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상산(328m)은 마을에서는 ‘큰산’으로 더 많이 부른다. 봄철 해무가 많은 날에는 낮게 깔린 바다 안개 위로 ‘큰산’만이 우뚝 솟아 있어 더 높게 보이는 산이다. 삼산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 산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정찰기가 안개 속으로 숨어버린 산을 보지 못해서 ‘큰산’ 바위 절벽에 충돌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243쪽에 소개한다.



상산

3) 충혼탑

소거문도 선착장에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마을 입구에서 제일 먼저 여행자를 맞이하는 탑이 하나 보인다. 장롱 모양의 사각형의 블록을 쌓아 만든 맨 위 머릿돌에는 충혼탑이란 큰 글씨가 새겨있고 아래에는 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전쟁 시기에 자원입대하여 목숨을 잃은 이 섬 출신 청년들의 이름이다.

우로부터 전공수, 송채봉, 방가본, 김근태, 김기태, 김양설, 전호근, 김갑원, 정종안이다. 작은 섬에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전쟁에 참여한 데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막힌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거문도 출신의 김봉안, 방봉운, 전동수, 박영주 네 젊은이가 고향으로부터 여순사건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이를 손죽도에 전파했다. 이후 소거문도 출신 좌익들이 주도했다고 하여 소거문도는 한동안 좌익 섬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여순사건으로 큰 고초를 겪었던 주민들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섬은 좌익 빨갱이 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원입대를 많이 하자고 젊은 청년들을 설득하여 20여 명의 청년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 안타깝게도 이들 중 9명이 전사하였다. 새마을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1970년대 중반 마을주민들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충혼탑을 세우기로 하여 주민들의 힘으로 이 탑을 세우게 되었다.



충혼탑



충혼탑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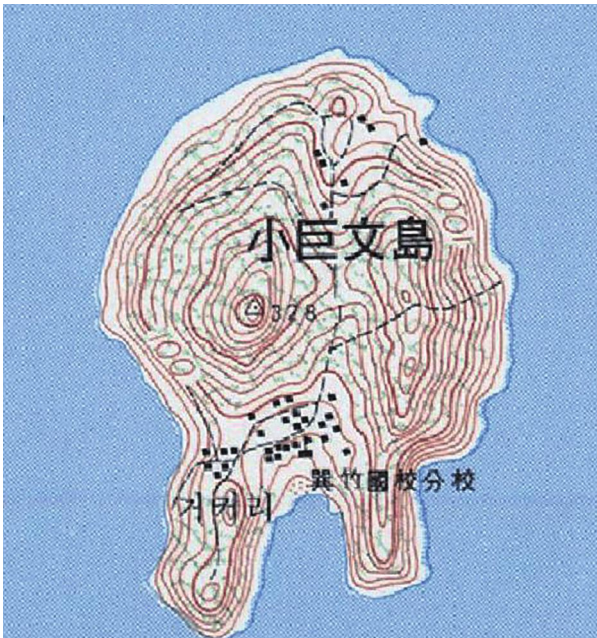
4) 사라진 물넋개마을

물넋개마을은 소거문도 북쪽 해안에 있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살았던 이주현 씨의 말에 의하면 물넋개마을이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 부모님의 기억에는 7가구가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주현 씨의 기억에는 5세대가 정겹게 살았다고 한다. 물넋개마을이 소거문마을로 이주하게 된 것은 정부의 도서지역 안보취약지구 철거 계획 때문이었다. 1976년 9월 거문도에는 남파간첩이던 김용규가 함께 남파되었던 간첩을 사살하고 자수한 거문도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거문도 간첩사건이 일어나자 남해안 일대의 섬은 수난을 겪게 되었다. 우선 간첩이 은거할 만한 동굴을 찾아 입구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진행되었다. 광도와 평도의 큰굴, 화양면 소장리의 용굴, 초도의 해안 동굴, 거문도 동도의 큰굴에는 이때 입구를 시멘트로 봉하거나 큰 돌을 날라다 메워버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향토예비군을 동원하였다. 거문도 간첩사건의 영향은 이웃 섬에도 영향을 미쳤다. 손죽도의 지지미마을과 소거문도의 물넋개마을이 대상이 되어 이주하게 된 것이다.

현재 물넋개마을은 섬 일주도로 개설로 걸어서 접근은 쉽지만, 안내자 없이 마을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마을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마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넋개마을에 남은 550여 평으로 많지 않았지만, 밭은 풍족한 편이었다. 마을 5가구 중 3가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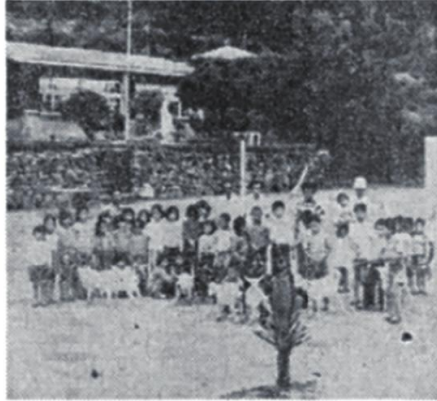
노 젓는 작은 배가 있어 가까운 잔커리나 소거문도의 해변으로 해산물 채취 등 갯짓을 하기도 하고 섬 주변에서 낚시도 하기도 했다. 몇 세대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오래전에는 당이 있어 당제를 지내기도 했다. 봄이면 5가구가 모여 화전을 즐기기도 했는데 소거문도는 예전 봉화를 올렸다는 요막등으로 가서 화전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웃 손죽도의 화전놀이도 유명했지만, 소거문도의 화전놀이도 중요한 마을 행사였다고 한다.



1970년대 지도 북쪽의 작은 점이 물넋개마을

5) 염소를 길러 진학의 꿈

1979년 7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낙도 어린이들 염소 길러 진학의 꿈’ 기사가 실렸다. 소거문분교장에서 경향신문 독자들이 보내준 성금 25만 5,500원으로 염소를 2마리를 사서 길렀다. 그러다가 염소가 12마리로 늘어나서 졸업생 9명과 진학을 포기했던 36명이 중학교 진학의 꿈을 이뤘다.



염소사육에 성공, 진학의 꿈을 이룬 소거문도분교 어린이들이 염소와 어울려 기뻐하고 있다.

落島 "어린이들 염소길러 進學의 꿈"
麗川 소거문도분교 本社에서 飼育기금
 ◇: 가난한 설마를 어린이들이 한나도교사의 노력으로 염소사육에 성공, 진학의 꿈을 이루게 됐다.
 ◇: 모후 33가구가 살고 있는 全南麗川郡三山면소거문도분교 어린이 36명은 삼전체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 불타게 여건이

학교 朴武正교사가 염소를 사육해서 진학자금을 마련하자고 설추민들에게 제의하고 각계에 염소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었다.
 ◇: 문화방송경향신문주 植機사장은 朴교사의 이같은 호소를 듣고 독자들이 그동안 분사에 기탁해온 낙도 어린이 돕기성금 가운데서 25만 5천 5백원을 전담여천도교육청을 통해 이십에 전달, 이 지원금으로 朴교사를 비롯한 설추민들은 장화외를 조직한후 염소 2마리를 사들여 사육을 시작, 지금은 모후 12마리로 불어났다.
 ◇: 염소사육의 성공으로 이 학교내도 졸업생 9명뿐 못한 진학을 포기했던 이 삼도교어린이 36명 모두가 열망하던 진학의 꿈을 이룰수 있게 되었다고.
 【麗水】

‘염소 길러 진학의 꿈’ 신문기사

3. 섬 생활의 변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데이터상에 2021년 9월 현재 여수시 유인도서 현황이 나오는데, 소거문도는 1.77km²의 면적만 나오고 나머지 가구수나 인구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조사가 왜 누락되어 있는지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 『삼산면지』¹²⁾에서도 1942년과 1996년의 인구분포 등을 인용하여 등재하였지만,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손죽향토지』¹³⁾에는 1968년 49가구 353명 거주로 남자 118명, 여자 23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광도를 제외한 주변 여러섬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주로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가서 태풍을 만나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고 대체로 남자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도 있다.

소거문도는 가구수 대비 정주 인구를 생각하면 한 가구당 평균 7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대가족을 형성하면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해서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 소거문도의 생업

2023년 현재 소거문도의 인구는 20가구 31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일할 만한 인구는 없고 모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의 생업을 조사하기는 어렵다.

소거문도의 선착장은 높은 방파제 안쪽에 있어 그곳에서 배를 내린다.

방파제 끝에는 테트라포드를 쌓아 놔다. 앞으로 공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방파제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섬이 얼마나 많은 바람과 대치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다.



육지 위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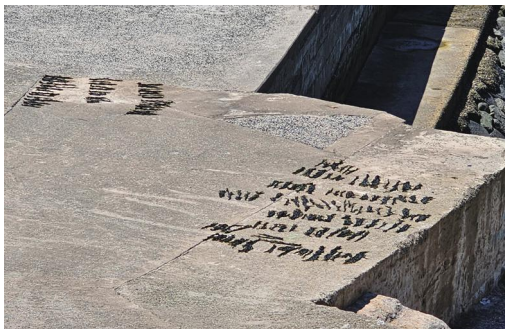
12)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三山面誌』, 삼산면지발간위원회, 2000, p.95~

13) 김광백 편저, 김계유 감수, 『손죽향교지』, 길기획, 1999. p7

배에서 내려 마을에 오르는 길 오른쪽으로 배들이 모두 물에 올려져 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언제 바람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배를 방파제에 묶어 놓지 않고 물에 올려 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끌어 내려서 뱃일을 하는 것이다. 배를 물에 올려놓는 것은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섬사람들의 지혜이자 섬사람들의 노하우라고 할 것이다.

1) 소거문도의 특산물

조사를 위해 소거문도를 찾은 날에도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웠다. 마을 입구 팔각정 옆 공터에 미역을 뒤집으러 잠시 일을 나오셨던 분이 전부이다. 마을을 들어서니 마을 골목 어귀에 마늘과 파씨를 말려놓은 것이 마을의 풍경이 되고 있다.



미역 말리기



투스말리기

2) 밭농사

인근의 손죽도, 광도, 평도에 비해 경작하는 밭이 비교적 많은 상태이다.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섬들은 집터를 빼고는 붉은 흙을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항공사진에 하얗거나 붉게 보이는 곳은 갯바위와 민가 뿐이다. 경작지들도 이미 휴경에 들어가서 초지화 되어 있는데 소거문도에는 아직도 농사를 짓기 위해 밭갈이를 한 땅들이 더러 보인다. 사실 농작물이라야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깨나 들깨, 옥수수가 전부이다. 정리된 농지에도 황칠나무와 두릅이 심어져 있다.

마을을 조사하다보니 경운기가 있는 집이 보인다. 비교적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깨끗한 경운기의 머리 부분을 천막으로 단단히 동여매 놨다. 농사를 지을 때는 경운기를 가지고 짓는데 한 대 있는 경운기가 고장이 날까 싶어 애지중지하는 모습이다.

귀한 경운기가 비를 맞아 고장날 경우 외딴 섬에서 수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지 낙도는 모든 농기구를 비롯해 가전제품을 자가 수리가 아니면 다른 집들과 뭉쳐서 여수에서 오는 기술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고 기술자도 한 대만 수리하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면사무소 순회 수리팀이나 섬마을 농기계 수리 자원봉사자들이 올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언제 올지 기약할 수도 없고, 설령 기술자가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장이 나면 배로 신고가서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한철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경운기는 무엇보다 귀하신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신주 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한다.”¹⁴⁾ 얼마 전에도 마을의 짐을 실어 나르던 1톤 봉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수고를 한 경험이 생생하다고 한다.

기계를 직접 다룰 수 없는 가정에서는 손수레가 있다. 손수레는 단순히 짐을 실어나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이동 보조기가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쓰던 유모차가 쓸모없어지면 그것을 어르신들의 이동 보조기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어르신 이동 보조와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손수레가 많이 개발되어 시골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경운기

걸음걸이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일종의 승용차인 셈이다. 밭일을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이 승용차를 앞세우고 간다. 교회나 바닷일을 하러 갈 때도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규칙에 의해 정렬해서 주차하는 모습들은 요즘 섬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있다. 특별히 규칙을 정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규칙이 있는 셈이다.

14) 신주(神主)단지란 신(神)이 살고있는 집처럼 몹시 귀중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루거나 소중하게 간직하는 향아리라는 뜻으로 토속 신앙 또는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말로 성주(聖主)단지 또는 세존(世尊)단지 조상(祖上)단지라고도 한다. 신주단지 향아리 속에는 범썩을 넣어뒀다. 벼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과 같은 종류인 쌀을 신주단지 속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한번 모신 신주단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되며 지역에 따라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첫 햅쌀로 바꾸어 주며 애지중지한다.

기록에 보면 소거문도의 주 특산품은 마늘이라고 되어 있으나 조사를 나간 시기에는 이미 마늘을 다 수확한 시기라서 실제로 마늘을 심어 놓은 것은 보지 못했다. 대신 마을 어귀 등에 간간이 마늘 종자를 말리고 있는 풍경만 볼 수 있었다.

3) 논농사

삼산면의 모든 지역에서 논농사의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소거문도 역시 지리적으로 땅이 넓지 않고 높은 산이 많아서 논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봐도 논농사의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4) 어업

배가 내리는 선착장은 우리가 방문한 날의 물때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계단 위에 있다. 배에서 내려 단이 높은 계단을 3단 정도 올라야 물에 다다른다. 섬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상당히 높은 계단이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사이사이에 노란 생물체가 박혀있어 자세히 보니 거북손이다. 거북손은 1급 청정 지표식물인데 배가 내닫는 선착장에도 이렇게 거북손이 자라고 있다면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개비도 가득하다. 선착장에 내려보니 마을로 오르는 길은 급경사지에 ‘갈 지(之)’자 모양의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워낙에 급경사지라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오르기 어려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급경사지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니 팔각정 앞과 빈공간 여기저기에 미역 말리기가 한창이다. 예전에는 미역을 못¹⁵⁾으로 팔기 위해 장방형의 널빤지 모양으로 길이 1m 정도, 넓이 10여cm 크기의 가닥으로 예쁘게 만들었다. 10가닥을 1못이라 하고 20가닥을 1손이라고 한다. 못으로 만드는 미역을 말리려면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미역들을 골라 1가닥으로 만드는 기술도 요구되었던 작업이다. 요즘은 일손이 모자라기도 하고, 계량용구의 발달로 못으로 팔지 않고 kg 단위로 팔기 때문에 미역 한 가닥씩을 그대로 펼쳐서 말린다.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미역이 다 자라기도 전에 채취하여 미역의 크기가 작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요즘은 일손이 모자라서 자주 채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역 채취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한 가닥의 크기가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닥을 그대로 말린다고 해도 제법 큰 미역을 얻을 수 있다. 가닥으로 만들 경우 워낙 소가죽이라 한 가닥을 한꺼번에 먹기도 어렵다. 그것을 나누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한 끼 먹기도 좋고 말리는 일손도 덜 타는 방법으로 한줄기 한줄기를 그대로 말린다.

15) 나무 장작이나 채소 등의 묽음을 세는 단위(신 24:19). 개역개정판에서는 ‘묽음’(행 28:3)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찍 고르기

팔각정에서 마을 어르신 세 분이 까만 물체를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자세히 보니 가사리 말린 것에 ‘찍’¹⁶⁾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가사리는 맛도 있고 먹기는 좋지만, 찍을 제거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일손이 없는 요즘은 잘 해먹지 않는다고 한다. 어렸을 때 가사리국은 흐물흐물한 가사리를 된장에 풀어 끓이면

씹을 것도 없이 후루룩 마시거나 밥을 말아 먹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소거문도는 이런 갯바위 해초를 채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전복이나 문어가 유명하고 요즘은 전국에서 갯바위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소거문도에 대한 어느 낚시 안내 사이트를 보니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다.

손죽열도 부근의 주요 어종은 감성돔, 참돔, 돌돔, 우럭, 노래미, 농어, 송어, 삼치, 문어 등이다. 손죽열도 부근은 여름에서 가을 시기(8월~10월)에 선상에서의 삼치 조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¹⁷⁾

나. 소거문도의 생활문화공간

마을은 상당히 깎아질러 거의 20도가 넘는 정도로 급경사 길을 걸어 올라가서 만날 수 있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 숲속에 약간은 흉물스럽게 보이는 시멘트 구조물이 있다. 가까이 가보니 충혼탑이다. 그 옆에는 십자가가 있어서 좀 썩똥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충혼탑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을회관 앞 바위틈 사이에 짙은 분홍의 송엽국이 강렬하게 우릴 반긴다.

16) 찍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가 바짝 다가붙거나 끈기 있게 들러붙는 모양의 부사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해초 등을 채취하면 해초가 붙어있던 자리에 있는 패각류가 해초에 붙어 따라와서 해초에 말라붙어있는 상태를 찍이라고 한다.

17) 출처: <https://www.badatime.com/p-762-1.html>

막상 마을에 오르니 다시 마을은 남쪽의 움푹 꺼진 곳에 내려가서 형성되어 있다. 집들은 지붕만 빼곡히 보인다. 담이 워낙 높고 그 높은 담장은 모두 송악이나 마삭줄, 이대로 둘러싸여서 지붕을 제외하면 온통 마을도 초지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담을 높이 쌓고 그곳에 넝쿨 식물을 심어서 튼튼하게 유지했던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지혜였을 것이다. 마을 지붕들 사이에 위성TV 안테나만 보인다. 색깔이 하얗고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면서도 전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높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 그럴 것이다. 다른 섬지역에서 보이는 커다란 파란 물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광도나 평도같은 섬도 그렇듯이 소거문도도 특별히 물 걱정은 없는 듯하다. 마을 위쪽에 커다란 저수조가 있어 여기에 지하수를 모아서 수돗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다.

소거문도의 가장 높은 산은 “상산”이다. 주로 지도에 표기할 때는 “큰산”으로 표기된다. 산이 높아서 안개가 낄 때면 산 중턱에 안개가 걸려 산 위쪽은 보이지 않는다. 정상부가 바위로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안개 때문에 경찰기의 시야가 가려 산에 부딪혀 승무원 4명이 숨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곧바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치러 주었는데 주민들의 꿈자리가 하도 나빠서 회의한 결과 시체를 파서 바다에 버리자고 하였다.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난 얼마 후 많은 사람이 음식을 장만하여 동력선을 타고 섬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비행기 사고로 죽은 유가족들이었다. 동네에 들어오기도 전에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상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연료로 쓰거나 팔기도 하였는데 별거벗은 상산에는 비행기의 잔해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잘 찾아보면 그때 비행기의 잔해가 널려 있고 부딪힌 흔적도 남아있다고 하나 산꼭대기가 절벽으로 둘러싸여 등산하기도 어렵고 접근이 쉽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소거문도에서는 자주 염소떼의 출현을 목격할 수 있는데 염소가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6년에 여수JC는 낙도에 주민 의료봉사를 다녔다. 정부 권장으로 낙도를 지명하는데 당시 유치현 씨가 회장



민가

이었고, 박형길 씨가 사무국장일 때 사무국장의 친구인 김준곤의 고향이라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료활동은 정부 권장 사항이라 정기여객선이 없는 소거문도는 해양경찰의 협조를 얻었다. 그때 당시도 소거문도에는 주민들이 이미 고령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계속사업으로 섬에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섬 주민들 지원사업도 병행했다. 섬 주민 지원사업으로 전복 종패를 사서 앞바다에 뿌려 주려고 했다. 회원이었던 여수수산진흥원 노섬(이후 제주대학교 교수 역임) 씨가 우리나라에 전복 종패 복원에 막 성공했던 때였다. 손죽도와 소거문도 사이는 수심이 깊어서 종패를 뿌려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거문도에 그대로 있어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전복을 채취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여 전복 종패를 주는 것은 포기했다. 그때도 이미 소거문도는 바다의 해산물 채취권을 해녀들에게 팔아서 마을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안으로 염소를 사달라고 해서 몇 년간 매년 5마리씩 염소를 사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소거문도에 염소를 기르게 되었다.

의료봉사를 갔을 때 학교 선생이 봉사자들에게 염소를 잡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염소의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개체수가 너무 많아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되자 더 이상 염소를 사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비의료인들은 특별히 섬에서 할 일이 없어서 비행기 떨어졌다고 하는 상상까지 걸어서 가보았다고도 한다.

다. 선박

1) 여객선

손죽도에서 섬사랑호가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2) 선박

소거문도의 어선 현황은 2023년 초 기준으로 어선어업이 등록된 선박은 없으나, 일부 섬 주민의 교통편의와 여가를 위한 낚시어선으로 무등록 선박이 2척 있다.

4. 소거문도의 민속문화

가. 소거문도의 지명유래



『정조실록』 19년(1795년) 5월 22일을 비롯하여, 『호구총수(戶口總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에서 지금의 소거문도(小鉅文島)를 거문도(巨文島)라 표기하고 있고, 동시대에 발행한 『여산지(廬山志)』 등에서도 소거문도를 거문도(巨文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소거문도는 우리말 이름이 ‘거커리’라고 하는데 바로 곁의 작은 섬을 ‘잔-커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거커리’는 큰커리란 뜻이다. 거커리가 거문도로 표기 된 데에는 조선시대 우리말 지명표기법을 살펴보면 이해된다.

우리말 거커리는 거글이와 발음이 비슷하여 거는 음차하여 클거(巨)로 표기하고 글은 음차하여 글문(文)으로 표기하였으며 섬이어서 섬도(島)를 붙여 ‘거글이’가 ‘거문도’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군의 거문도 사건 이후 삼도를 거문도로 바꿔 부르게 되면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소거문도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다.

- | | |
|----------------|---|
| 【개(浦)】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개 : 소거문도 동북단 해변으로 노란색을 띤 큰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 • 물넛-개 : 소거문도 동북단으로 신추 북동쪽에 있는 해변 • 시우-개 : 소거문도 동남편 해변으로 옛날에 시우(돌고래 일종)라는 고기가 많이 잡혔던 해변 |
| 【고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캐-재 : 소거문도 마을에서 서쪽으로 가는 고개 • 쥐-재 : 소거문도 마을에서 정북쪽 신추로 가는 고개 |
| 【곶(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대-곶 : 소거문도 남쪽 중앙부에 있는 간대(빨래줄에 걸치는 막대기)처럼 생긴 낭떠러지 • 동-고지 : 소거문도 남쪽을 돌출된 두 곳 중에서 동쪽으로 솟은 곳 • 솔-머리 : 소거문도 남쪽으로 돌출된 두 곳 중 서쪽의 곶으로 솔머리는 산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뿔어내리는 형태의 지형을 의미함 • 큰-개-곶 : 소거문도 정 북단에 있는 해변 |
| 【기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순-기미 : 소거문도 선착장 남쪽 지역으로 겨울이면 따뜻한 해안이어서 붙은 이름 |
| 【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은-널 : 소거문도 서쪽 해안지역으로 검은색의 너럭바위가 있는 지역 • 민짓-너리 : 소거문도 최남단 절벽 지역으로 민짓너리는 미끄러운 너럭바위라는 뜻 |



신추



큰개골

【마을】

- 거-커리 : 톱 모양으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소거문도를 말하는 옛 땅이름이며, 커리는 제주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언으로 마을 또는 길을 의미함
- 건네-편 : 소거문도 남단으로 뻗은 동고지에서 건너편을 이르는 말
- 신-추 : 소거문도 북단 서쪽 지역으로 ‘추’는 큰 바위나 절벽이 바다에서 바로 바라 보았을 때 곧추세워져 있는 지명을 의미함. ‘신추’는 ‘센 + 추’의 의미로 높은 낭떠러지의 의미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추라는 지명은 하얀 풀이 많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작은-진-맹이 : 맹이는 산에 바위가 깨어져 흘러내린 지역을 말하는데 ‘긴 + 맹이’가 변한 말
- 잔-커리 : 소거문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거커리보다 작은 섬이라는 뜻으로 ‘작은 커리’라는 뜻
- 큰-진-맹이 : 소거문도 동남단 새우개의 옆 바위가 흘러내린 지역

【바위】

- 베늘-바 : 소거문도 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로 곡식 날가리(베늘)처럼 생긴 바위
- 오지-바 : 소거문도 서쪽해안에 있는 돌로 갈라진 바위

【산】

- 큰-산 [상산봉] : 해발 328m의 소거문도 중앙부에 있는 산으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 가운데 불쑥 솟은 산이어서 일제 말인 1945년 5월 군용기가 안개에 싸인 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머리 부근에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음
- 선착장 [뱃멀] : 소거문도 서쪽 중하단부에 있는 마을 선착장

【여】

- 안-땀-여 : 소거문도 서쪽 간대 끝에 있는 여
- 흘-목-여 : 소거문도 서쪽 큰물짜지에 있는 여

【작지】

- 큰-물-짜지 : 소거문도 서남단에 있는 마을 선착장 앞의 해변으로 ‘큰물짜지’는 ‘큰 + 마을 + 작지’의 뜻으로 큰마을에 속한 자갈밭 해변

- 【지역(곳)】
- 새-걸-수 : 소거문도 남단 동고지 동남단으로 해변으로 내려가는 세 갈래 길
 - 안-개 : 소거문도 동쪽에 있는 해안으로 마을 안쪽에 있는 개
 - 큰-굴 : 소거문도 동쪽에 있는 큰 굴
- 【지역(밭)】
- 고냉이네-밭-밭 : 소거문도 동북단의 노랑개의 윗지역으로 옛날 고냉이라는 사람의 밭 아래 해변
 - 삼월네-밭-밭 : 소거문도 동쪽에 안개의 윗지역으로 삼월이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해변 아래

나. 소거문도의 설화와 민요

1) 굴 전설

마을 해안가 배당은 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쪼개진 바위 사이로 굴이 있는데 이 굴은 소거문도 반대쪽 해안에 있는 해식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 동굴에는 큰 구렁이가 승천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러나 실제 동굴에 들어가보면 중간이 막혀있다고 한다.

마을 해안가 배당은 데에서 오



해안굴

2) 화전놀이

소거문도에서도 삼월 삼진날 즈음에 화전놀이를 했다. 마을 바로 뒤에 있는 보리마당에 모여 색깔이 달린 보자기를 단 깃발을 들고 마을 뒤편 산 위로 올라가 북치고 장구를 치고 놀았다. 다만 손죽도와 다르게 남녀가 함께 올라가 화전놀이를 했으며, 집집마다 음식과 막걸리를 준비하여 올라가 놀았다. 손죽도와 마찬가지로 '제화 장소' 등을 부르며 놀았다고 한다.



보리마당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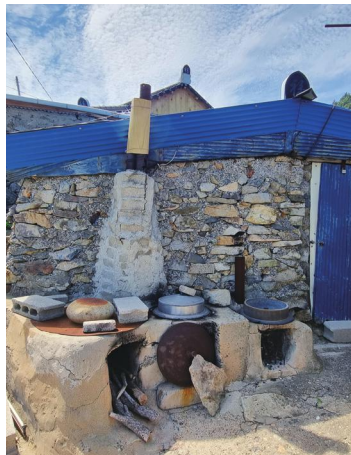
다. 소거문도의 음식문화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하여 농토가 넓지만,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 목전이 되어 있다. 소거문도에서도 보리와 고구마를 주로 심어서 주식으로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텃밭에서 참깨, 옥수수, 콩, 토마토, 호박, 도라지 등을 재배하여 반찬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역과 김 등의 해조류가 많이 난다.



장독대



보조솔



가사리미역



참깨농사

라. 소거문도의 신앙

1) 당제

소거문도에서는 정월 초이틀에 당제를 모셨는데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집은 마을 뒤편 상산 중턱 ‘등너머(등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로 건물이 없이 당림에서 제를 모셨다.

정월 당제는 따로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당산에서 내려와 큰마을과 작은마을(물넛개)을 오가며 매구를 쳤다. ‘등너머’에 있는 일곱 가구가 살던 작은마을과 큰마을을 오가면서 매구를 쳤다.

2) 용왕제

소거문도 주민들은 선달그믐에 용왕제를 지냈다. 마을 앞 바닷가 자갈밭 ‘큰물작지’에서 집집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 상을 차리고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낸 후 오쟁이를 만들어 밥과 나물을 넣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 ‘큰물작지’에서 걸판을 벌여 귀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위로하기도 했다.

3) 매산제

마을 어르신들이 선달그믐에 일진을 봐서 생기복덕이 맞는 스무살 전후의 젊은 총각을 선정했다. 선정된 총각은 물을

길어다 밥을 지어 제를 지냈다. 젊은 총각이 엷드려서 ‘매산님네’라고 세 번 부르면 마을 어르신 한 명이 ‘돌너머’에서 ‘오냐’ 하고 대답한다. 젊은 총각은 소거문도 사람들의 평안과 건강 등을 빌었다. 그러면 어르신이 ‘오냐’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향조인 오씨와 배씨에게 섬의 평안을 기원한 점이 색다르다.

4) 제만

마을에 병이 돌거나 병해충 등의 큰 피해가 있으면 보리마당에서 ‘제만’을 모셨다. 제만은 소를 잡아 소머리를 제물로 썼다. 소 값은 마을의 공동경비로 지불했으며, 초상이나 출산이 없는 등 깨끗한 집의 좋은 소를 골라잡았다고 한다.

소거문도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 당제와 매산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한때 당집 근처에 두 사람이 감싸 안을 정도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덕훈이라는 사람이 톱질하여 베었다가 즉사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당림



우물

5) 소거문도교회

소거문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979년 박무정 선생이 당시 국민학교 관사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전상수 집사의 노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1984년에 최



소거문도교회

명 전도사가 부임해 와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2023년 12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소속으로 황승용 목사가 시무중이다.